



교회의 비전 VISION

평신도 훈련 · 젊은이 선교 · 아시아 선교 · 이웃 봉사



제자훈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셀과 구역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기 위한 약 3개월 단위의 제자훈련 과정과 그 후에 따르는 신병훈련소(Boot Camp) 과정을 말합니다.



원투원 (복음반)	각 처소에서
성경탐구 40일	교육관 I 주일 오후 2:30 / 6:30
제자훈련 I, II (청, 장년)	교육관 I 주일 오후 2:30 / 6:3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본 당 I 주일 오후 2:30 / 6:30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곳

- 협력선교사 : 김노아(C국) / 김주만(태국) / 우진호(B국) / 최삼열(C국) / 김성욱(M국)
- 협력 교회 : 아리용무교회(몽골)
- 협력 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성경번역선교회(GBT) / 한국기독교학생회(IVF) / 한국말알선교단 / HOP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 한국오엠선교회(OM)

모임안내

주일 축제 예배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 축제 예배	주일 오후 2시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셀 모임	각 셀이 정한대로
심방	화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	월~금 새벽 5시30분
셀리더 모임	수요일 저녁 9시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김성식

부목사 박종호
전도사 권미화
전도사 이재웅



BEAUTIFUL NEWS

아름다운소식

제37-24
2026년 6월 14일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고민하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3:17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에 빠져 심히 괴로워한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한 아주 유용한 판단 기준을 발견했다. 나는 이 판단 기준은 “혹여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다. 두렵고 무서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또 그는 자기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그들에게 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히 의롭다고 믿었다. 그들은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죄를 슬퍼하지도 않았고, 불신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들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취했다. 죄책감을 느끼며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자기 죄를 걱정하며 불안에 떠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작은 죄를 기꺼이 용서하듯이 큰 죄도 기꺼이 용서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일단 죄를 용서하시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어 문제 삼지 않으신다.

주 일
축제예배

나의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나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6-47

11시 김성식목사

경배와 찬양 찬양팀

기도 이성현장로

성경봉독 **누가복음 24장 44-49절** 김목사
(신약 182쪽)

강론 **부활의 목격자가 걸어가야 할 길** 김목사

기도와 찬송 다같이

봉헌 다같이

교제 서로 돌아보며

축도 김목사

수 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박목사

목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다같이

강론 박목사

찬송 다같이

치유기도 및 개인기도

새 벽
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인도:박종호목사,이재웅전도사

<매일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월 9:24-10:13 역사의 본보기

화 10:14-11: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 11:2-16 예배의 질서에 관하여

목 11:17-34 평등의 식탁인 성찬

금 12:1-11 한 성령과 다양한 은사

토 12:12-31 한 몸의 다양한 지체

일 13:1-13 가장 좋은 길,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시 150:1~2

함께 기도할 제목

- 김민성(선영자매동생) 점점 인지기능이 발달하게 하시고 이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지난주 헌금내역

십 일 조	김명수,진은영 오금석,정혜민 유준호,최수진 윤성인,손영주 이운우,김미정
	권경희 김제식 이하랑
감 사 제 목	1.치유받고 건강하게 살게하시니 감사합니다.(김성식,전계영)
	2.전인치유수양회에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김지숙)
	3.치유수양회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김향심)
	4.저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유준호,최수진)
	5.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이유경)
	6.목자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이종식,심영이)
	7.성령님, 어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수진)
	8.날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무명)
	9.범사에 감사합니다.(김명수,권혜영,최영,고시훈,무명)

지난주 헌금통계

십일조	3,890,000원	분립헌금	90,000원
감사헌금	620,000원	선교헌금	160,000원
주일헌금	100,000원	나눔헌금	270,000원
건축헌금	180,000원	기타수입	28,001원
		헌금합계	5,298,001원

사도신경
찬 송 : 277
기 도 : 가족 중
본 문 : 막9:38-50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부패를 막아 주고 심심한 것을 맛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50절)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타인들을 배격하지 말고 포용할 것을 가르치시는 한 편,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죄악에 대하여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소금은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며,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소금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자신을 죽이고 녹아들어가는 화목이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살맛나는 곳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불의와 부패를 향한 나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소금이 녹아진 곳에 부패는 없습니다.

기 도 하나님, 참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패가 사라지고 살맛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 보 기 도 · 사직 3동을 향한 섬김이 잘 이루어지도록
·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에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항상 애찬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 1.치유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였습니다.
- 2.오늘 중직자모임 있습니다.
- 3.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4.금요기도회에 김성욱단장님 오셔서 간증해 주십니다.
- 5.교회 주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 101-2096-6639-07 대한예수교장로회아름다운교회

섬기는 분들	기 도		안 내
	이번 주	이성현장로	이성현장로
	다음 주	이운우집사	이운우집사

섬 김	토·일 2-3층	토·일 1층, 분리수거
6/20일	김명수, 김성관, 오금석	하랑셀
6/27일	고재필, 박성환, 서영석	하랑셀



중국 샤오량산 노수족

노수족은 중국 윈난성과 쓰촨성 경계에 있는 샤오량산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1949년 이전 노예제도도 인해, 사회는 복잡한 계급과 부족, 씨족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간의 갈등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노수족은 농업과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고립된 산악 지형 탓에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티베트 불교나 민속 신앙을 따르며, 조상 숭배와 자연 숭배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의 접근성이 낮아 빈곤과 낙후된 생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노수족에게 한족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수족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 됨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
당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린다면
어떤 내용으로 꾸미겠습니까?

경배와 찬양 WORSHIP

하나님께 접속되어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450장)
너 시험을 당해 (찬342장)

말씀 WORD

부활의 목격자가 걸어가야 할 길 <누가복음 24장 44-49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자 사명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우주의 비밀이나 천국의 신비에 대해 더 화려하고 거대한 말씀을 남기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깨달으라. 너희는 증인이다. 그리고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 다음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 다음 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2.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3.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말씀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증인의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증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성경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세요.

1. 최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나 인생의 해석을 바꾸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4.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쳐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5.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 이번 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사역 WORK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순종

1.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능력받아 예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겠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2. 치유수양회의 은혜가 그냥 소비되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도록 기도하십시오.
3. 여름 사역(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